

# 先비핵화 공감...북핵협상 '큰 틀' 유지할 듯

## 美중간선거 결과와 비핵화 협상

민주 하원 장악 국회 압박 강화  
북미대화 속도·동력 약화 전망  
고위급 회담 연기 등 속도조절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북핵과의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정책의 앞날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선거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야당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후반기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하원의 지형재편이 큰 틀의 한반도 정책 방향 변화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

는 게 워싱턴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주장해온 민주당 간에 간극이 크게 없어진데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선(先)비핵화-후(後)제재해제'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 독식 구도가 붕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북미 대화의 동력도 다소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당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중간선거 전 조기 개최를 희망하며 서두르려고 했던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2인자급'에서 진행 중이던 북미대화 일정이 연기돼 그 배경과 향후 협상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애초부터 중간선거 이후로 일정이 잡혔고 선거결과도 상당부분 예측했다는 점에서 이를 중간선거 결과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

이 나온다. 다만 국무부는 추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문은 분명히 열려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미미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회 내에서부터 트럼프 프시 대북 협상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추동력도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외교적 해결이라는 지향점은 공유하면서도 하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각종 청문회 개최 및 의회 보고 질타 카드 등을 꺼내 북미 협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당이 반(反) 트럼프 전선을 구축해가는 과정에

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할 공산이 작지 않다는 관측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틈다운 방식으로 이뤄져 온 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전반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의 경우 민주당이 하원의 예산권을 카드로 쥐고 '힘'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얻어낸 것 없이 '양보'만 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의회 차원의 견제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재선 가도에서 대북 문제를 주요 외교적 성과의 하나로 부각하려고 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급격한 정책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현재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려 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

# 中왕치산 "대외 개방 지속... 보호주의 반대"

## 싱가포르 혁신경제 포럼 개막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든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이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표명하면서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7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왕치산 부주석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8년 혁신경제포럼' 개막식에서 '조류에 순응하고 혁신해 공동 발전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왕 부주석은 "현재 세계 정치와 경제가 냉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전에 대응하는 관건은 조류에 순응하고 대세를 파악해 신념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고 각국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길을 존중하며 이견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개혁개방과 혁신을 통해 발전 성과를 인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진일보했지만 아직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사회 모순은 남아 있다"면서 "중국은 대외 개방을 기본 정책으로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며 다자무역체계를 지지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치산 부주석은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경제 세계화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서도 균형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국경 문턱' 낮추는 동남아 국가들

## 관광객 유치 사활... 태국·미얀마 등 무비자 확대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7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도착 비자 허용 대상국 국적의 방문객들에 한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비자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유럽 지역 21개국으로, 이 기간 대상국 국적 소지자는 2000바트(약 6만8000원)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태국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도착비자 적용 대상국 방문자들이 계속 줄어든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태평양에 위치한 태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개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의 핵심 타겟은 중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1100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0%에 육박한다.

그러나 지난 4월 푸켓에서 보트 전복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47명이 숨진 이후 중국인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또 9월에는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보안 담당자가 중국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후 태국 정부는 공항에 중국인 전용 입국 수속대를 설치하는 등 유커를 다시 끌어들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인근 미얀마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 관광객에게 지난달부터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또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도착비자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얀마는 지난달 말부터는 마카오 특별행정구(SAR)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인 방문객에게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라오스는 최근 무비자 입국한 한국인의 체류 허용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 /연합뉴스

# "상사의 괴롭힘은 회사 책임"...日 방지책 의무화 추진

일본 정부가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파워하라'를 막을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과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파워하라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것으로, 힘을 뜻하는 'power'와 괴롭힘이라는 의미의 'harassment'를 합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파워하라'를 막을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과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파워하라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것으로, 힘을 뜻하는 'power'와 괴롭힘이라는 의미의 'harassment'를 합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전날 자문회의인 노동

# 김정은 초상화 첫 등장

## 北방문 쿠바 지도자 함께 평양 순안공항에 내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번째 공식 초상화로 여겨지는 그림이 등장했다고 영국 공영 B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내외를 평양국제비행장(순안공항)에서 맞이했다.

이때 김 위원장과 디아스카넬 의장의 대형 초상화가 공항에 걸려있는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다.

BBC는 김 위원장의 사진이나 비공식 '팬 아트'(fan art) 외에 공식 대형 초상화가 보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초상화가 계속 이용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초상화에서 김 위원장은 약간 왼쪽을 보고 웃음을 짓고 있으며, 서구식 양복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방북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영접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국제비행장 터미널에 걸린 김 위원장과 디아스카넬 의장의 대형 초상화. /연합뉴스

넥타이를 맨 모습이다. 'NK 뉴스'의 애널리스트 올리버 호담은 "이같은 방식의 김정은 초상화가 등장한 것은 (북한) 체제가 김정은 개인숭배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암시"라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지도자의 상징성과 이미지는 중요하다.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모든 건물에 걸려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권력을 잡았지만 그동안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과 동등한 지도자라기보다는 계승자에 가까운 이미지로 비쳐왔다. /연합뉴스

# "하락" vs "100달러"...국제유가 전망 오락가락

미국의 이란제재와 예외, 공급과잉 우려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런던 ICE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배럴당 72.13달러로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 12월 인도

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61.31달러까지 떨어져 7개월여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보복을 앞두고 지난달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었지만, 이후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가 이란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레피니브 에어콘에 따르면 하루 평균 260만배럴인 이란산 원유 수출량에서 이들 8개국의 수입 비중은 80%를 넘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달 이란의 원유 수출이 하루 100만~150만배럴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아시아 원유 수입업체들이 조만간 이란산 원유 주문을 늘리려 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제재 예외 기간에 하루 36만배럴 수입이 허용된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이 통신에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셰티그룹은 연말까지 유가 평균이 배럴당 80달러 수준이겠지만, 공급 문제가 악화하면 90~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유국들은 공급과 관련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직할)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중4층 현임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의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의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의 매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찰및남골묘 1300기 토지3만6천㎡ 매매가 10억원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4층 3동 객실37개 월매출 6천~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포함 매매가35억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

## 혈당조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씩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약!!!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